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k.net

## 주일오전설교 | 감사와 찬송과 당부

[딤펴 1:12-14]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훼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暴行者)**(폭행재이었으나 도리어 **공흠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불신앙 중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비방하고 핍박하고 폭행했던 자이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했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폭행했었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 불신앙 중에 무지함으로 그런 악을 행하였었다. 비록 그 죄악이 심히 컸지만, 구주 예수께서는 죄인 바울을 불쌍히 여겨주셨다. 주의 공흠과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에게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도 주셨다. 구원의 은혜는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주 예수님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다. 죄인 바울이 구원을 얻었고 사도의 직분까지 받았다는 것은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다고 말한다. 그는 비록 무지함으로 믿는 이들을 핍박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가졌었다. 주께서는 충성된 마음을 좋게 여기시는 것 같다. 주께서는 바울을 구원하신 후 사도의 직분까지 주셨다. 우리는 말은 일이 크든지 작든지 충성된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직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은 자기의 직분과 직무를 잘 이해하고 겸손히 충성하는 것이다.

[15절] 미쁘대[믿을 만하다]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전적으로 받을 만한(KJV, NASB, NIV) 이 말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이 진실한 말씀이요 사람들이 전적으로 받을 만한 말씀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세상에 참으로 복된 소식이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유대

인 청년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 곧 구주이심을 의미한다. 구약성경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신적 인 구주를 약속하였다(사 9:6; 미 5:2). 바로 그 약속된 신적 구주께서 오신 것이다. 그는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사 53:5) 그들을 위해 그 몸이 찢리시고 상하시는 고난을 받으셨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비방하였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기 때문이었다. 모든 죄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지만, 특히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대적하는 행위는 죄 중에도 큰 죄이다. 하나님과 그의 구원의 복음을 대적하는 것은 매우 큰 죄악이다.

[16절] 그러나 내가 공흠을 입은 까닭은 내가 이 때문에 공흠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때문에’라는 말은 ‘죄인의 괴수이기 때문에’라는 뜻 같다. 구주 예수께서 죄인들의 우두머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주께서 그에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셔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 죄인들의 괴수 같은 큰 죄인이 주의 공흠을 입어 구원 얻었으므로, 이제 어떤 죄인이라도 주의 공흠을 입을 수 있음이 증거되었다. 어떤 크고 심각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구주 예수께로 나와 그를 믿으면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17절] 만세의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지혜로우신(전통사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표현한다. 하나님께서는 섭리자 곧 통치자이시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섭리자이시다. 그는 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는 영원하신 왕이시다. 그는 존재의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그는 썩지 않으신다. 모든 피조물은 다 죽고 썩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고 썩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또 보이지 않으신

다. 그는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시다. 그는 모든 존재 세계의 근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홀로 하나이시다.’ 세상에는 한 하나님께서 계신다. 다른 신들은 모두 가짜이며 헛것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 거짓된 우상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열거한 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기원하였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다.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들이 디모데야, 전에 네게 주었던 예언들을 따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써 명하노니 너는 그것들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KJV, NASB, NIV).

‘그것들로’라는 말은 그가 전에 그에게 주었던 예언들이라는 뜻이다. ‘예언들’은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교훈들을 말한다. ‘선한 싸움’은 믿음과 진리와 의를 위한 싸움이며 교회를 위한 싸움이다. 우리의 몸에 있는 죄악성(갈 5:17)은 성령의 생각과 대립되며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이다. 또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된 풍조들과도 싸운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도 당한다(요 16:33; 딤후 3:12). 더욱이, 사탄과 악령들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대적한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과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 에베소서 6:17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검이다. 주 예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구약성경을 인용함으로써 마귀를 물리치셨다(마 4:4, 7, 10).

**[19-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내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훼방하지 말게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한다. 선한 싸움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그 싸움에 지면 믿음을 잃고 불신앙과 죄에 떨어진다. 이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그것은 개인적 배교와 변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속죄 신앙, 복음 신앙, 성경적 신앙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착한 양심이 무너지거나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의 묵상과 기도로 깨어 있음으로써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영적 싸움에서의 실패자들 가운데 후메내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다. 그들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인신 공격이 아니다. 이미 시행된 권징을 알리며 우리에게 그것으로 교훈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은 제명 출교를 가리킨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이지만, 교회 밖은 사탄이 활개치는 사탄의 세계이다. 요한일서 5:19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여 있다고 말했다.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말은 사도의 권위를 보이며 권징을 집행한 자가 그 자신임을 증거한다. 이와 같이 오늘날 목사와 당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 주신 영적 권위를 소유하고 있고 이 권위를 가지고 권징을 시행한다.

권징의 목적은 그들로 비난하지 않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다. ‘징계를 받는다’는 원어(φαιδωδοσι)는 영어성경들의 번역대로 ‘배운다, 가르침을 받는다’는 뜻이다(KJV, NASB, NIV). 그들은 진리를 비방하고 참된 믿음을 비난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도 비난했을 것이다. 그런 자들은 좁은 길보다 포용주의를 좋아하고 타협적인 길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제명 출교의 권징을 통해 비난하지 않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왕이시다. 17절,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만세의 왕, 영원하신 왕, 곧 주권적 섭리자이시며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홀로 하나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며 순종해야 한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철학자들과 같다. 철학은 우주의 근원과 인간의 삶의 의미, 죽음과 그 너머 등에 대해 질문하지만, 참된 대답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자들은 성경을 통해 그런 물음들에 대해 대답을 얻었다.

둘째로, 예수께서는 죄인들의 구주이시다. 15절, “믿을 만하도다, 전적으로 받을 만한 이 말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들 중에 내가 죄수니라.” 구주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고 죄인들의 죄수 바울을 구원하셨다. 그는 그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하실 것이다. 또 그는 핍박자 사울을 불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는 오늘 우리도 그의 공훈과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셋째로, 우리는 영적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18-19절,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네게 주었던 예언들을 따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써 명하노니 너는 그것들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우리는 믿음에서 떠난 배교와 변절에 떨어지지 말아야 하고, 자신의 죄성과 사탄과 세상의 악의 풍조와 싸워 이겨야 한다. 우리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잘 지켜야 한다. 특히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성경말씀 묵상과 기도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잘 지켜야 한다.

**주일오후설교**      **하나님께 대한 의무**

[출 20:1-2]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모든 말씀’은 이어 나오는 십계명을 가리킨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으로 모든 도덕적 교훈들의 요약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의 고된 노역과 학대로부터 그의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신 후 이 십계명을 생활 규범으로 주셨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말씀하셨다. 그것은 네 가지이다.

**[3절] 너는 나 외에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알과나이)[내 앞에] (KJV, NASB, NIV)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유일신(唯一神) 사상을 가져야 할 것과 다른 신들을 인정치 말아야 할 것을 말한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진리이다. 시편 96:5,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 이로다.” 이사야 43:10,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사야 44:6,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5:5-6,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 . .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예레미야 10:10-11, “여호와와는 참 하나님이지요 사시는 하나님이지요 영원한 왕이시라. . . . 너희는 이 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

서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4-6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수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이다. ‘새긴 우상’이라는 원어는 ‘나무나 돌에’ 새긴 우상이라는 뜻이다. 두 번째 계명은,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즉 해나 달이나 별을 비롯하여 각종 새들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 즉 나무나 짐승들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 즉 물고기들 등, 그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말한다. 그것들은 다 피조물들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고 그 어떤 피조물들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할 이유로, 그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며 우상숭배의 악에 대해 징벌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질투는 인간 관계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생기는 감정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징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삼사 대까지 징벌하시면 그가 문은 다 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천 대’라는 원어(알라핀)는 ‘수천’(thousands)이라는 뜻이다(KJV, NASB). 의인들은 대대로 즉 그 자손들이 복될 것이다. 시편 37:25-26,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지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지손이 복을 받는도다.”

**[7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랏소웨) 헛되이, 함부로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나 그에게 기도하거나 맹세할 때 하

나님의 이름을 진실하게, 진지하게, 두려움과 존중함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농담할 때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함부로 사용하는 자들을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실 것이다.

#### [8-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 . .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다. 7일 중 하루를 거룩히 구별하여 안식일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해야 한다. 또 이 계명은 옛세 동안 함께 우리의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을 전제(前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려면 우리는 옛세 동안에 우리의 할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한다. 또 이 계명은 온 가족이 다 함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함을 강조한다. 안식일은 집안의 한두 사람이 대표로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을 포함하여 온 가족이, 심지어 집에서 일하는 자들, 즉 본인의 책임과 권한 아래 있는 직원들이나 집에 찾아온 손님들까지도 함께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안식일에는 세속적인 일들을 중단해야 한다. 그 날에 우리는 직업상의 일(즉 직장의 일, 사업의 일), 매매하는 일, 세상 공부, 오락(사 58:13) 등을 중단해야 한다. 출애굽기 34:21,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느헤미야는 이 날에 술틀을 밟거나 매매하는 일을 안식일을 범하는 악한 일로 정죄하며 경계했다(느 13:15-22). 또 그 대신, 그 날은 ‘성회(聖會)’ 즉 공적 예배의 날로 지켜야 한다(레 23:3).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옛세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심에 근거하였다. 그는 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안식일을 성취하셨다(골 2:16-17). 그러나 그것은 구약시대보다 더 풍성한 방향으로의 성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범을 따라 주일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온종일 거룩히 구별하여 기쁨과 자원함으로 지키며 주 안에서 쉬며 교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십계명은 모든 사람이 순종해야 할 도덕법의 표준이다. 첫째로, 우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를 믿고 섬기며 따라야 한다.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둘째로,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또 그것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아닌 것에게 하나님처럼 큰 가치를 두고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현대인들에게는 돈이 대표적인 우상이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찬송과 기도와 맹세를 할 때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야 한다. 토요일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주일로 성취되었다. 우리는 주일을 즐겁고 복된 날로 지킨다. 우리는 이 날에 세속적인 일을 중단하고 교회로 모여 찬송과 기도와 성경말씀의 교훈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은 영육으로, 기정적으로 복되다.

### 수요일 설교

### 메시아의 통치

[사 32:1-20]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 . . .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본장에 예언된 의로 통치하실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그 의로 통치하실 왕이 바로 구약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그를 영접하며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악을 분별하고 고상한 삶을 살아야 한다. 8절, “고상한 자는 고상한 일을 도모하니 그는 항상 고상한 일에 서리라.” 이 세상은 선악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세상이며 세상에는 어리석고 불경건하고 악하고 거짓된 일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의와 선을 택하여 고상한 삶을 사는 고상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안일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 9절,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는 안일함을 버리고 깨어 근신해야 한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고 육신의 쾌락을 구하며 범죄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의와 평안을 누리려는 자가 되어야 한다. 15절,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될 때까지 그러하리라.” 17절, “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의를 행함으로 풍성한 평안을 누리야 한다.